

# 영적 돌봄의 인간학적-신학적 의미

## (Spiritual Care: Humane and Theological Meaning)

지금 비록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내 육체적 차원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져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점차 잊혀져가고 사라지고 말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끔 내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가 영적 돌봄이다.



박준양 세례자 요한 신부  
2004년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교  
(Pontifical Gregorian University)에서 교의신  
학 전공으로 신학박사(S.T.D.) 학위 취득.  
현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현재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신학위  
원회(OTC) 위원.

### 1. 전인적 돌봄(holistic care)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인간 존재에 관한 질문과 성찰은 대부분 전인적(全人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인간의 어느 한 특정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간을 보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인적 인간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구분(distinction)은 가능하지만 결코 분리(separation)할 수 없는 전인적 인간의 다섯 가지 측면, 즉 신체적(physical) 측면, 논리-지성적(logico-intellectual) 측면, 심리-정서적(psychological) 측면, 사회적(social) 측면, 그리고 영적인(spiritual) 측면의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겠다.

이 다섯 요소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육체적 질병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활동이 차단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보다 근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측면의 쇠락이 곧 사회적 측면의 약화를 동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영적 측면의 감수성을 증대시키기도 하는 것이다.<sup>1)</sup> 미국 신학자 다니엘 D. 윌리엄즈(Daniel Day Williams, 1910-1973)는 이러한 연결성을 가리켜 인간 존재의 '연쇄성(連鎖性)의 원리'(the principle of linkage)라고 부른다.<sup>2)</sup>

오늘날 전인(全人)을 말한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한 가지도 배제하거나 경시하지 않고 전체를 모두 포괄하는 통찰을 의미한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다루면서도 전체적인 균형(balance)과 조화(harmony)를 이룰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인간에 대한 전인적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는 마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자 하는 대상의 전체적 외

1)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1990년 갤럽(Gallup) 조사에서도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Cf. Christina M. Puchalski, "The Role of Spirituality in the Care of Serious Ill, Chronically Ill, and Dying Patients", in AA, Vv., *A Time for Listening and Caring: Spirituality and the Care of the Chronically Ill and Dying*, Christina M. Puchalski(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13.

2) 참조: 다니엘 D. 윌리엄즈(Daniel Day Williams), 『사목자와 사목적 배려』, 이봉우 옮김, 분도출판사, 1983, 26쪽.



곽을 카메라 렌즈 안에 담으면서도 그 내적인 구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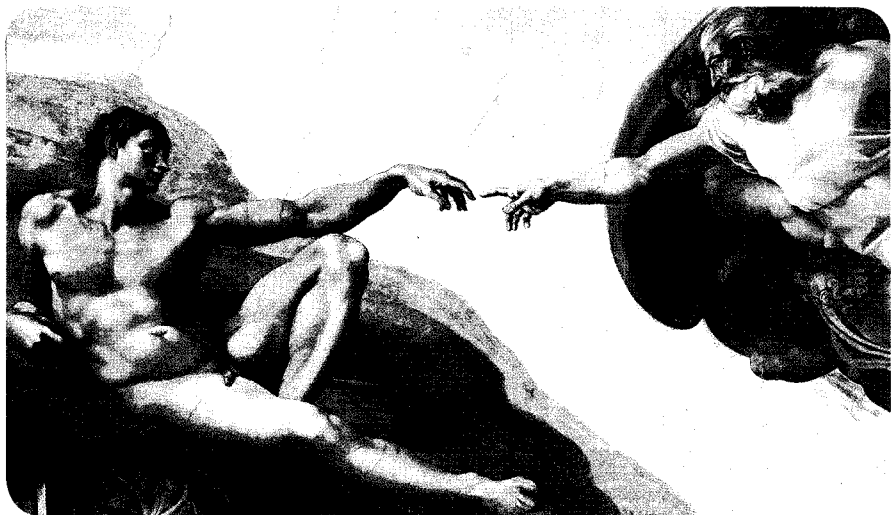
그런데 사진에는 반드시 초점(focus)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도 전체적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동시에, 하나의 초점이 필요하게 된다. 환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는 당연히 인간의 신체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면서도 다른 측면들에 대한 배려를 배제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질병이 만성적이 되어가거나 치료가 점차 어려워질 때, 혹은 끝내 회복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접어들 때, 우리는 신체적 차원에서의 치료를 지속하면서도 환자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초점이 필요한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즉, 환자에 대한 영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영적 접근에서의 일차적 관심은 치료(cure)보다는 돌봄(care)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심신통합적(心身統一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접근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 돌봄'(spiritual care)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므로 영적 돌봄은 인간의 영적 차원에 주된 초점을 맞추면서도 다른 차원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환자라는 한 인격체의 전체적 균형과 조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시에, 신체적 차원에서의 치료뿐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돌봄에도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중적 초점의 형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인적 돌봄'(holistic care)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돌봄의 요체(要諦)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어 호스피스(Hospice)나 완화의료(palliative care)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영적 접근과 배려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sup>3)</sup>

신체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새로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인간의 영적 차원이란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성'(religiousness)이란 개념이 종교의 예식(ritual)적 측면과 사회-제도적 측면까지도 포괄하여 다의적(多義的)이고 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적 돌봄에서는 인간의 영적 차원을 주로 인격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초월적 실재와의 만남과 접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삶의 현상적 차원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 추구 등이야말로 인간의 대표적인 영적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sup>4)</sup>



3) 완화 의료 단계에서의 영성적 접근에 대하여 참조: Laurence J. O'Connell, "Spirituality in Palliative Care: An Ethical Imperative", in *Ax, Vv., A Time for Listening and Caring: Spirituality and the Care of the Chronically Ill and Dying*, pp.27-38; Daniel P. Sulmasy, "The Healthcare Professional as Person: The Spirituality of Providing Care at the End of Life", in *Ax, Vv., A Time for Listening and Caring*, pp.101-114. 영적 돌봄에 대한 간호학적 관점에서의 해설은 참조: 용진선, "영적 간호", 『호스피스 완화 간호』,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교육연구소 역음, 군자출판사, 2006, 389-412쪽.

4) Cf. Christina M. Puchalski, "Spiritual Care", in *A Time for Listening and Caring*, pp.45-46; Daniel P. Sulmasy, *The Rebirth of the Clinic: An Introduction to Spirituality in Health Car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6, p.14; Lisa Burkhardt · P. Ann Solari-Twadell · Shela Haas, "Addressing Spiritual Leadership: An Organization Model",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38/1(January 2008), p.38.

## 2. ‘영적 존재’(spiritual being)로서의 인간<sup>5)</sup>

구약 성경의 창세기(*Genesis*) 1장 26-27절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in the image of God) 창조되었음이 강조된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기는 하였지만, 성경의 통합적 단일성이라는 빛 안에서 볼 때,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1장의 메시지는 다음의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볼 수도 있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인간은 흙의 먼지로 빚어진 보잘 것 없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숨으로 인해 그 고귀함과 존엄성을 얻게 된다. 이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이거나 해부학적 차원에서 외적인 형체가 비슷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숨’을 받아 창조되었기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결정적인 손길은 바로 창조의 순간에 선사되는 ‘하느님의 숨결(영)’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곧 ‘영적 존재’이다. 인간의 생명으로, 인격(人格)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본질적 속성과 운명을 드러낸다. 창조주 하느님의 영에 의해 태어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절대자 하느님 앞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통교하며 응답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하느님의 숨결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는 것을 마치 육체에 영혼이 주입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면서 인간의 육체성을 경시하는 것은 그리스적인 이원론적(二元論的) 사상이며, 이는 성서적 인간관과 다르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란 먼저 육체를 만들고서 거기에 영혼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로써 창조하심을 의미한다. 흙의 먼지로 인간이 빚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유한(有限)한 자연적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느님의 숨결(영)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초자연적(超自然的)이며 신적(神的)인 기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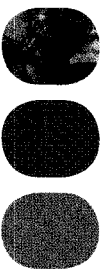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숨결이야말로 곧 ‘하느님의 영’(the Spirit of God)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영과 연결된 ‘영적 존재’(spiritual being)이다. 여기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말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영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영의 본질적인 초월적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sup>6)</sup>

그렇다면 영의 본질적, 초월적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인간은 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초월적 체험에 의해서 참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영은 우리를 과거의 아픈 기억(내적 상처)이나 현재의 한계, 혹은 미래적 허상(虛像)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self)’의 모습을 발견하게끔 인도한다. 인간(human being)은 지금 고정되어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가는 인간’(human becoming)인 것이다. 현재의 자기 모습과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그 잠재적 가능성과 근원적 형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영은 이처럼 끊임 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인간의 초월적 자기실현 과정을 인도해 나간다.<sup>7)</sup>

5) 여기에 나오는 창조론적 관점의 성서적, 신학적 통찰은 다음의 책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 보완하여 정리한 것이다: 박준양, 『창조론,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을 꿈꾸며』, 생활성서사, 2008, 39-86쪽.

6) 참조: 다니엘 D. 윌리엄스(Daniel Day Williams), 『사목자와 사목적 배려』, 133쪽.

7) 참조: 박준양, 『성령론, 그 신비로운 현존과 작용에 관하여』, 생활성서사, 2007, 116-118쪽.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본래적(本來的)으로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은 가능하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통합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 거룩한 존재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인간은 그 거룩한 존재와 통교함으로써 현재적 한계를 뛰어넘어 참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의미이다.

로마 교황청의 바티칸 박물관(Musei Vaticani) 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Cappella Sistina)에는 서구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 미술의 거장(巨匠)으로 꼽히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의 프레스코 천장 벽화가 있다. 이는 창세기 1-11장의 창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 연속적인 아홉 개의 주제화 중 네 번째는 하느님 창조 사업의 절정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사람(아담)의 창조’를 묘사한다. 미켈란젤로는 인간이 하느님에게로부터 생명의 숨결을 부여받는 순간을 이른바 ‘구강 대 구강’(mouth to mouth) 호흡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손가락을 인간의 손가락에 마주 닿기 위하여 다가가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창조주 하느님의 손길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적 손길’(spiritual touch)을 의미한다. 바로 이 손길을 통하여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자각하게 된다. 인간의 영적 차원이란 이처럼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룩한 실재, 초월적 실재와의 통교 접점을 의미한다. 잠든 인간을 깨우는 거룩한 초월적 실재의 손길, 바로 그 통교의 손길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영적 돌봄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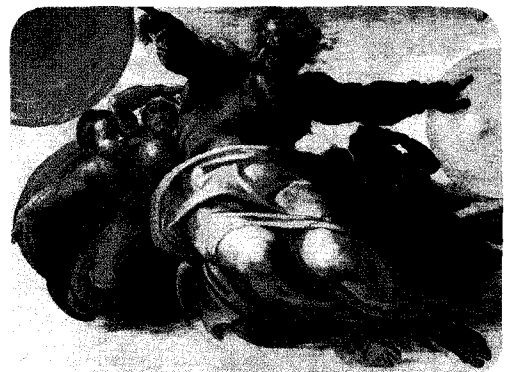
### 3. 온전성(wholeness)을 향한 초월적 의미 체험

#### 3.1. 한계 체험과 의미 체험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거룩한 실재와 만나고 통교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限界)를 뛰어넘는 초월적 의미성을 체험함을 가리킨다. 지상적 존재이며 또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의 체험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의미 체험이 동시에 교차되며 이루어진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의 한계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우리를 찾아오는 이러한 고통과 한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미소하고 유한(有限)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한계 체험은 곧 의미 체험을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무력한 한계 상황의 체험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의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8)</sup>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Viktor E. Frankl, 1905-1997) 박사는 이에 관해 웅변적인 증언을 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내와 부모와 함께 나치에게 체포되어 아우슈비츠(Auschwitz)와 다하우(Dachau) 등지의 강제수용소에서 3년의 시간(1942-1945)을 보내게 된다. 프랭클 박사는 이 기간 동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로고테라피’(Logotherapy)라는 정신요법을 창안하였다.



8) 참조 박준양, 『종말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생활성서사, 2007, 18-19쪽.

그는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를 통해 과거의 고통스러운 체험에 대하여,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게 하는 '의미'(意味)에 대하여 생생하게 증언한다.<sup>9)</sup>

수용소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죽어갔다. 프랭클 박사는 이렇듯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생존하게끔 만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프랭클 박사를 버틸 수 있게 하고 생존하게끔 이끈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수용소의 어려운 고비들을 헤쳐 나간다. 이처럼 발견된 '삶의 의미'는 한 인간의 존재에 존엄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본래적 힘으로 전환된다.

프랭클 박사의 증언은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 인간을 살게 하는 초월적 힘이 바로 사랑의 의미 체험에서 솟아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를 죽음의 상황에서조차 살아남게 하는 신비로운 구원의 힘은 바로 이러한 초월적 의미 체험, 즉 사랑과 자비의 체험으로부터 솟아나온다. 영적 돌봄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근원적이며 초월적인 의미 체험이다.



### 3.2. 초월적 의미통교

인간의 언어는 크게 두 가지 범주(範疇, category)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지시적(情報指示的) 언어이다. 이는 말 그대로 정보를 지시하는 언어이다. 운전은 어떻게 하고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며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또 하나의 범주는 바로 의미통교적(意味通交的) 언어이다. 이는 정보가 아닌 의미를 전달하고 통교하는 언어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든지 “고맙습니다.” 혹은 “용기를 내세요.” 등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보화 시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인간은 의미통교적 언어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모든 것을 정보로만 파악하려 들며, 정보가 곧 돈이고 힘이라는 논리에 쉽사리 젖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과학과 첨단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정보화 시대의 진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락함과 편리함 뒤에 숨

겨진 그들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온통 정보지시적 언어의 홍수뿐이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마저 점차 의미통교적 언어가 실종되어가면서 가정은 해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sup>10)</sup>

질병으로 고통 받으며 한계 체험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많은 의료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많은 지시 사항들이 주어진다. 어떻게 보면, 환자는 자신이 복잡한 의료 체계의 한 요소일 뿐이며 그저 수동적으로 치료 행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무력한 존재라고 느낄 수도 있다. 영적 돌봄이란 환자에게 의료 정보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통교하는 행위이다. 환자로 하여금 자신은 단순히 의료 정보의 수취인(受取人)이나 치료 행위의 수동적 대상 이상의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는 돌봄이다. 환자가 정보지시적 차원을 넘어 의미통교적 차원에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대면(confrontation)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적 돌봄이다. 그 핵심은 특히 심각한 만성적 질병이나 회복이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혹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놓인 이들에게 그들이 지금 체험하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초월적 의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데에 있다. 한마디로, 영적 돌봄이란 환자 자신의 영적 감수성(spiritual

9) 참조: 박준양, 『종말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122-128쪽.

10) 참조: 박준양, 『삼위일체론, 그 사랑의 신비에 관하여』, 생활성서사, 2007, 63-66쪽.

sensitivity)을 증대시키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의미 체험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행동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환자가 거룩한 실재와의 초월적 의미 통교 속에서 영적 손길(spiritual touch)에 의해 창조된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되찾아 전인적 통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 3.3. 온전성을 향하여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창조 행위는 그 말씀에 따라 '가르느'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하느님의 분리(分離) 행위는 분류(分類)를 가능케 하고,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실재의 탄생이 이루어진다. 종류를 가른다는 표현은 언뜻 보기에 부정적인 느낌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에 의한 분리 행위란 파괴적 단절(斷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참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끔 하는 창조적 분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본래적(本來的) 모습으로 있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창조론적 질서의 회복이며 거기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창조론적 에너지가 생성된다. 인간은 이렇듯 자신의 본래적 자리에서 삶의 충만함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존재이다. 우리에게 선사된 고귀한 생명의 큰 특징은 바로 '성장'에 있는 것이다.<sup>11)</sup>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상태는 생명의 본질적인 성장 여정에서 벗어나 있음을 가리킨다. 어떤 의미에서, 질병이란 인간의 육체가 그 본래적 상태로부터 이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혈압이나 혈당이 정상적인 상태로 조절되지 않을 때, 혹은 세포가 정상적 상태를 벗어나 변형을 일으킬 때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 것 아닌가? 사실, 인체에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연적 복원 능력이 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러진 뼈가 다시 붙고 상처 났던 곳에 새 살이 돌아 회복된다. 그러나 심각한 질병이란 인체의 이러한 자연적 복원 능력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 치료적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래적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영적 돌봄의 놀라운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 병고로 인해 쇠약해진 환자의 육체적 상태가 본래적 상태로의 자연적 복원 능력 밖으로 이탈한 모습을 보여 준다면,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이를 대면하고 수용하면서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의 복원을 시도하게 된다. 거룩한 실재와의 초월적 의미 통교가 이를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생명 안에 내재하고 있던 근원적인 영적 손길을 접하고 '온전성'(wholeness)을 느끼게 된다. 영적 통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자비의 체험을 통해, 쇠약해진 육체적 상황 속에서도 환자는 자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근원적 존재성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영적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설적인 전인적 통합이다.

이처럼 본래적 온전성과 충만함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환자는 비록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 혹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조차도 자신의 품위와 존엄성(dignity)을 되찾고 내적 평화(inner peace)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 'shalom'(shalom)은 어원적으로 '충만함' 혹은 '온전성'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진정한 평화의 회복은 바로 온전성의 체험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하느님 안에서 존엄한 평화를 누리던 에덴 동산의 상태(창세기 2장 참조)가 충만함(shalom)의 이상적 상태를 보여 준다. 어떤 의미에서, 의학적 치료와 영성적 돌봄 모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온전성'을 지향하는 행동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누군가를 치유한다(heal)는 말 자체가 어원적으로는 온전하게(whole) 한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sup>12)</sup>



11) 참조: 박준양, 『창조론: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을 꿈꾸며』, 28-32, 82쪽.

12) Cf. Daniel P. Sulmasy, *The Rebirth of the Clinic: An Introduction to Spirituality in Health Care*, p.16.

## 4. 영적 돌봄의 이상(理想)<sup>13)</sup>

### 4.1.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적 돌봄의 이상(理想)으로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시며 수많은 치유와 구마(驅魔) 기적을 행하신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마르코 1,32-34)

예수님께서서는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육체적으로 병들고 아픈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즉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각별히 돌보시며 치유하신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태오 9,12-13)

질병이 곧 죄악의 결과인 것처럼 간주되던 시절,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병고에 대한 치유와 악령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해서 죄악의 현실에 대해 근원적인 도전을 하신다. 따라서 이러한 기적의 의미는 단순히 신체적, 물리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동안 사람들을 괴롭혀 왔던 그 모든 존재론적 상처의 치유가 이루어짐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적, 외적 속박으로부터의 전인적(全人的) 자유와 해방이 선사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고 자비로운 돌봄의 결과이다.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인간의 상처와 아픔에 진실로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연민과 사랑 가득한 마음이야말로 인간에게 평화로운 안식을 선사하는 모든 돌봄과 치유의 원천이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오 11,28-30)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듯 병자와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가엾이 여기시는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 때문임을 증언하고 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러한 대목들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고유한 사랑과 자비를 가리키기 위하여 ‘가엾은 마음이 들다(σπλαγχνίζομαι)’라는 특별한 동사를 사용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마태오 14,14)

사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근본 동기 역시 굶주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과 측은지심(惻隱之心)이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마르코 8,2-3) 영적 돌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기에 나타난 ‘사흘 동안 머물렀는데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오랜 병고로 인해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지고 심리-정서적으로 고갈된 환자의



13) 여기에 나오는 성서적, 신학적 통찰은 다음의 책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 보완하여 정리한 것이다: 박준양, 『그리스도론, 하느님 아드님의 드라마』, 생활성서사, 2009, 63-132, 267-269쪽.

치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먼 데서 온 사람들’이란 오랜 투병 생활의 여정 끝에 이제는 회복이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 이른 환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또한 비유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특히 오랜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보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共感)의 돌봄을 뜻한다. 사실, ‘자비’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compassion=com+passion)과 라틴어 단어 ‘콤포시오’(compassio=cum+passio)는 모두 그리스어 동사인 ‘섬파테오’(συμπαθέω: 연민하다 혹은 동정하다)에서 유래한다. 이 동사는 ‘함께(σύν) 고통받다(πάσχω)’는 어원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자비란 사랑의 열정 때문에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나누고 돌보는 것을 뜻한다.



#### 4.2. 영적 중재자의 역할

그리스도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돌봄을 고통 속의 환자에게 중재하고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돌봄의 가장 큰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신앙이란 영적 돌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란 절대적 존재, 거룩한 존재,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역사(役事)하심에 대한 신뢰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초연함과 평화를 발견하는 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그러므로 환자를 영적으로 돌보는 이(spiritual care-giver)는 환자에게 개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자비로운 돌봄을 전달하는 일종의 영적 중재(spiritual intervention)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적 중재는 신학적으로 볼 때 ‘참여된 중개’(participated mediation)라는 기본 원리에 근거한다.<sup>15)</sup> 즉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 돌봄의 원천적 효과는 돌보는 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통교하는 거룩한 초월적 실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 중개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돌보는 이는 이러한 원천적 중개에 참여하는 하나의 협력자(collaborator) 혹은 안내자(guide)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환자를 영적으로 돌보는 이, 즉 영적 중재자는 환자의 초월적 의미 체험과 통교를 돕고 지지하여 그들의 영적 성장(spiritual growth)을 격려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환자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거기에 압도당하거나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지 않는 초연함의 유지이다.<sup>16)</sup> 따라서 그는 자신의 고통과 좌절을 진실하게 대면하고 성찰하는 훈련을 통해 환자의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그리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초월적 지향으로 환자를 인도해나갈 수 있는 초연함과 영적 자질을 키워나가야만 한다. 한계 상황을 대면하는 용기와 관용, 자

14) 참조: 아이리스 V. 켈리(Iris V. Ouly), 『종교교육-아동발달 및 학습이론에 입각한』, 이봉우 옮김, 분도출판사, 2008, 15쪽.

15) ‘참여된 중재(participated mediation) 개념에 대하여 참조: 박준양, 『성령의 보편적 현존과 활동에 관한 신학-교의신학적 원리들』, 『가톨릭신학』 9(2006/겨울), 한국가톨릭신학학회, 31-34쪽.

16) Cf. Christina M. Puchalski, “Spiritual Care”, in *A Time for Listening and Caring*, p.42.





기 스스로의 영적 감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 환자의 영적 요구(spiritual needs)에 대한 이해와 배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 하는 영적 전망(spiritual vision), 그리고 초월적 의미 체험에 열려 있는 개방적 자세 등이 영적 중재 역할을 위해 필요한 인간학적-영성적 요소들이다.

#### 4.3. 영적 돌봄의 검증

이러한 영적 중재를 통한 돌봄이나 치료 효과가 임상적(clinical), 경험적(empirical) 관점에서 검증될 수 있겠지만,<sup>17)</sup> 그렇다고 해서 의학적 혹은 심리학적 차원에서 그 모든 영적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자세하고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이를 '은총'(grace)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학에서의 은총 개념이 반드시 그 어떤 비상한 가시적 효과를 전제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느님의 초자연적 작용이 인간 삶 안에서 실제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자아낼 때, 이를 '창조된 은총'(created grace)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간 실존 안에 함께하는 하느님의 초자연적 현존 자체를 또한 은총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창조되지 않은 은총'(uncreated grace)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인간 존재 안에 깊이 현존하는 '창조되지 않은 은총'은 때때로 구체적인 작용을 통해 '창조된 은총'으로 드러나 직접적인 체험을 가능케 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은총 체험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대부분 '창조된 은총'의 작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은총 체험의 뿌리를 이루는 '창조되지 않은 은총'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창조되지 않은 은총'의 드러나지 않는 현존과 '창조된 은총'의 직접적 체험은 우리의 삶 안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sup>18)</sup>

바로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 돌봄의 효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에 있어 환자와 함께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질적 접근(qualitative approach),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경험적(empirical)이며 과학적인(scientific) 검증, 즉 양적 접근(quantitative approach)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며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sup>19)</sup>

### 5. 영적 돌봄의 예: 거룩한 이름을 부른다

영적 돌봄의 구체적인 한 예로서, 돌보는 이와 환자가 함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돌보는 이가 환자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함께 혹은 각자 이러한 호칭 기도를 일상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많은 이들이 인생길을 걷다 때때로 어려운 고비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려 입으로 부르는 기도를 들 수 있겠다. 특히 동방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흔히 '예수님 기도'라고도 불리는 '마음의 기도'가 유명하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예수님의 이

17) 이러한 검증의 구체적 예시는 다음 책의 9장("Scientific Studies of the Healing Power of Prayer")을 볼 것: Daniel P. Sulmasy, *The Rebirth of the Clinic*, pp.147-160.

18) 참조: 박준양, 『은총론, 그 고귀한 선물에 관하여』, 생활성서사, 2008, 18-36쪽.

19) 이러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구체적인 통합적 예시는 참조: Lisa Burkhart · P. Ann Solari-Twaddell · Sheila Haas, "Addressing Spiritual Leadership: An Organization Model", pp.38-39.

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기도이다.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sup>20)</sup>

묵주 기도 역시 반복적인 호칭 기도이다. 우리에게 앞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성모 마리아는 우리 생애, 그 고난의 여정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다. 많은 이들이 고통과 역경의 심연 속에서 묵주 기도를 바치며 탄원을 드렸던 기억을 갖고 있다. 병들고 지쳤을 때, 가난과 파산 속에서, 극심한 가정불화 속에서, 혹은 미움과 증오의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죄악의 나라에서, 마침내 죽음을 앞두고서 그래도 마지막 희망으로 묵주 기도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sup>21)</sup>

위에 열거한 두 가지 기도 모두 형식적 측면으로는 반복해서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호칭 기도인 동시에, 내용면으로는 인간이 체험하는 한계 상황에서의 기도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실, 성경의 세계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름에는 실제 자체를 제시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수용하는 힘이 내재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 하느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긍정, 믿음과 더불어 온전한 의탁을 내포한다.<sup>22)</sup>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한계 상황 속에서 환자가 정성껏 바치는, ‘거룩한 이름’(holy name)을 부르는 기도는 단순한 호칭 행위 이상의 효과를 자아낸다. 이러한 기도는 호칭하는 거룩한 초월적 대상과의 통교로 이어간다. 즉, 호칭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실재를 만나는 초월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육체적 병고 속에 슬픔과 절망을 겪는 환자에게 이러한 의미 통교의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그들은 진정 자비를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 초월적 의미 통교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며 동반적(同伴的)이기에, 그들은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는 거룩한 실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것처럼 말이다(요한 20,14-18 참조).

무덤 안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대화까지 나누었음에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침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이다.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서 가려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마침내 그 이름을 불러 주신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분이심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뿌니!”(Rabbouni, 스승님) 하고 대답한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감격스런 장면이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젖어 좌절해 있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20) 참조: 박준양 『그리스도론, 하느님 아드님의 드라마』, 8-9쪽.

21) 참조: 박준양 『성령론, 그 신비로운 현존과 작용에 관하여』, 107-108쪽.

22) 참조: 박준양 『창조론,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을 꿈꾸며』, 74-75쪽.

다가와 내 이름을 불러 주시며 당신 구원의 신비로 나를 초대하여 위로하시는 순간이다. 그래서 나 역시 “스승님!”이라 부르며 응답하여, 그분을 내 삶의 결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sup>23)</sup>

이처럼 상호 호칭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그리스도의 만남은 거룩한 실재와의 초월적 의미 통교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것처럼, 영적 돌봄이란 어떤 의미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환자에게 그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비록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내 육체적 차원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져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점차 잊혀져가고 사라지고 말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끔 내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가 영적 돌봄이다. 나는 여전히 거룩한 실재, 초월적 실재의 영적 손길에 접해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끔 내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바로 영적 돌봄이다. 육체적 차원의 쇠락 속에서도 이처럼 거룩한 실재와의 초월적 의미 통교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기 복원, 그 역설적 통합이야말로 영적 돌봄의 원대한 목표이다. 돌보는 이가 불러 주는 자신의 이름 속에서 환자는 거룩한 실재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현재의 슬픔과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돌보는 이의 역할 중 하나는 거룩한 실재와의 통교를 위한 영적 중재에 있어 환자의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환대(hospitality)하고 집중(concentr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출신의 사목심리학자 헨리 나웬(Henri J. M. Nouwen, 1932-1996)에 따르면, 이러한 환대와 집중은 영적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자 필수 요소이다.<sup>24)</sup> 환대는 모든 외적 조건을 떠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게 하는 관용적 힘이다. 환대는 또한 상대방에 대한 집중적 자세이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중과 배려로서, 두 사람의 만남을 기능적 차원에서 존재론적 차원으로 격상시킨다.

이처럼 거룩한 실재의 이름을 부르며 이루어지는 영적 통교의 체험은 또한 돌보는 이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켜, 환자를 환대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킨다. 예를 들어, 한 간호사는 예전에 환자를 대하고 주사를 놓을 때 주로 기능적, 업무적 차원에서 생각하였으나, 이제 영적 돌봄에 눈을 뜨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면서부터는 자비의 눈길로 환자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외적이고 인위적인 교육 훈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변화를 통해 환자를 밝은 미소와 따뜻한 친절로써 환대하고 집중하여 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내가 이름 부르며 통교하는 거룩한 실재, 초월적 실재가 나 자신을 변화시켜나가는 의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스스로 자비의 눈길로 다른 이를 바라보고 환대하며 집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체험이다.



23) 참조: 박준양, 『그리스도론, 하느님 아드님의 드라마』, 313-314쪽.

24) 참조: 헨리 나웬(Henri J. M. Nouwen), 『상처 입은 치유자-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사목』, 이봉우 옮김, 분도출판사, 1982, 100-106쪽.